

계보에서 취향으로

— 袁枚의 「不飲酒二十首」를 중심으로

홍혜진*

<目 次>

1. 서론
2. 음주시 전형의 탄생과 계승
3. 원매 불음주시의 특징
 - 1) 음주시 계보 이탈에 대한 근거
 - 2) 陶淵明 음주시의 전형성 해체
 - 3) 현실에 대한 유쾌한 자기만족과 자립
4. 결론

1. 서론

청대의 한족 문인들은 만주족에 의해 명조가 멸망하는 것을 목도하면서 현실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전통에 대한 검토도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런 까닭에 청대 문인들 사이에서는 경전에 대한 오독을 문제 삼아 고증학에 몰두하였으며 역대 고인에 대한 과장된 찬미와 모방에 대해 냉정한 평정심을 찾으려했다. 그중 袁枚(1716-1797)는 음주시 및 화도음주시에 대한 모방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 시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고전시에서 음주시 창작의 전통은 陶淵明을 필두로 唐代에 李白, 白居易 그리고 宋代에 蘇軾(1037-1101) 등으로 이어지며 하나의 계보를 형성하게 되었다. 특히 蘇軾은 「和陶飲酒二十首」를 비롯한 다수의 작품을 지어 和陶詩가 성행

* 서울대 중문과 강사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외에 晁補之(1053-1110)의 「飲酒二十首同蘇翰林先生次韻追和陶淵明」, 元代에 方回(1227-1305)의 「和陶淵明飲酒二十首」, 明末에 魏學洧(1596-1625)의 「和陶淵明飲酒二十首」, 清代에 施閏章(1618-1683)의 「客中獨酌偶和陶公飲酒二十首」 등이 있다.¹⁾

역대 문인들이 도연명을 찬미한 데에는 고결한 인품, 은자적 풍모 그리고 세상을 초탈한 음주의 풍류를 담백하고 자연스럽게 작품에 녹아내었다고 본 것이다. 이와 달리 현실사회의 참여에는 회피적이었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송대에 주자학이 성행하여 도연명을 유가 사상을 실현한 성현으로 추앙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明代와 清代까지 도연명의 '儒化' 현상이 지속되었다.²⁾ 宋儒에 의해 적극적으로 시작된 도연명의 聖人만들기는 그의 인품을 찬미하고 작품을 모방하는 것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清代에 性靈派의 영수로 활약하였던 원매는 좀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개인의 '性情'을 강조하고 사상적으로 불교와 도교는 물론 宋儒의 학풍에 반대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송대 이후 도연명을 추앙하는 음주시의 모방 풍조에 제동을 걸 수 있었을 것이다. 원매는 和陶飲酒詩를 의식한 듯 「도연명에게 음주 20수가 있는데 나는 천성이 음주를 좋아하지 않아 반대로 불음주 20수를 짓다(陶淵明有飲酒二十首余天性不飲故反之作不飲酒二十首)」³⁾란 작품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일면 파격적인 행보로 보이는 이 작품은 당시 문단에서 성행하고 있던 唐宋 파별주의, 모방주의를 겨냥한 것이었다. 원매는 음주와 불음주 사이에서 음주로 편향되었던 관습적 구조에 불만을 제기하며 음주자와 도덕적 인격자 사이의 등치 관계를 파기시키고 후대의 음주자들이 손쉽게 얻었던 역사적, 전통적, 문화적 의미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낼 새로운 기호의 생성을 과제로 맞게 되었다. 음주를 단순한 소비 대상으로 대하고 그 호불호의 기준을 원

1) 戎霞, 「從『不飲酒』看袁枚對陶淵明的解構」, 『閱讀與寫作』, 2004, 5쪽.

2) 王維, 李白, 杜甫 등은 도연명을 존경하면서도 현실을 외면하고 은거한 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송대에 들어 소식 등은 도연명이 劉宋을 섬기지 않고 東晉을 위해 절개를 지켰다고 보고 '忠義'를 강조하였다. 「『陶淵明詩話』를 통한 陶詩의 수용과 해석의 양상에 관한 연구」, 최일의, 『중국문학』 제57집, 2008, 87-91쪽.

3) 제목이 긴 것을 고려하여 「不飲酒二十首」로 줄여 쓴다.

때 자신에게 두었다. 이로써 음주를 개인적 기호이자 취향의 문제로 전환시키고 화도음주시의 계보로부터 탈피하는 계기를 마련했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不飲酒二十首」가 청대에 하나의 커다란 시풍으로 정착되지는 않았지만 중국 고전시에서 도연명을 대표로 내세운 음주자들이 가졌던 은자적 태도, 懷才不遇의 심경 더 나아가 聖人이라는 역사적 표상이 조금씩 해체되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시에 그동안 불음주자들이 적극적으로 얻지 못했던 정체성을 정당히 획득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도 했을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이미지를 해체함으로써 원매는 스스로 새로운 문인 유형을 선도했을 것이다. 원매는 자신의 계급, 이미지, 문화형식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자신의 천성과 능력에 의존하였다. 그는 청대 중엽에 강남도시인 南京, 蘇州, 揚州, 杭州 등지에서 上層紳士이자 전업문인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글쓰기로 자신의 관심 분야를 피력하였다. 『小倉山房詩集』, 『小倉山房文集』의 정통 詩文에서부터 『隨園詩話』, 『子不語』, 『袁太史稿』, 『隨園隨筆』, 『隨園食單』의 시화, 지괴소설, 수험서, 고증서, 음식서 등을 지어 자신의 능력, 취향, 일상, 가치관을 표출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었다. 그 중 『隨園食單』은 원매의 경험미학에서 나온 음식잡학서이다. 원매가 직접 찾아다니며 먹고 보며 얻어낸 정보들을 재료별로 분류하여 총결한 책인데 마지막 부분에 차와 술에 대한 「茶酒單」을 두었다.

나는 천성이 술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술에 대한 규율이 지나치게 엄격하였지만 오히려 술 맛을 깊이 헤아릴 수 있었다. 지금은 세상에 소흥주가 유행하고 있지만 창주의 맑음, 潯酒의 독함, 四川 술의 신선함이 어찌 소흥주보다 못하겠는가! 무릇 술은 나이든 노인이나 높은 유학자와 같아서 오래될수록 귀한 것이고 처음 술병을 열었을 때가 좋은 것이다. 속담에 “술은 머리쪽, 차는 다리쪽”이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화력의 방법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면 차갑고 너무 지나치면 익어버린다. 불에 가까이 닿으면 맛이 변하므로 반드시 물을 사이에 두고 불을 떼야 하는데 술기운이 나오는 곳을 꼭 막아야 비로소 술맛이 좋다. 마셔볼 만한 것을 골라 뒤에 열거하였다.⁴⁾

4) “余性不近酒，故律酒過嚴，轉能深知酒味。今海內動行紹興，然滄酒之清，潯酒之冽，川酒之鮮，豈在紹興下哉！大概酒似耆老宿儒，越陳越貴，以初開釀者爲佳。諺所謂“酒頭茶腳”是也。炖法

원매는 이 저서를 통해 음식, 차, 술에 대한 자신의 취향과 소비 성향에 대해 밝혀 놓았다. 그러나 술에 대한 지식은 제공하면서도 음주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자신의 천성에 근거하여 거부감을 보였다. 이에 따라 그에게는 당연히 도연명의 음주시를 모방할 이유가 없었으며 오히려 원매식의 「不飲酒二十首」를 짓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원매가 자신의 취향을 전면에 내세울 수 있었던 데에는 이미 18세기가 도덕적 가치만을 중시하는 평면적 시대가 아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역사적 관행이나 관습이 느슨해지고 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이고 표준화된 기준에 의해 자신의 가치가 부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독립되길 원하는 사람이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고는 원매의 「不飲酒二十首」의 특징을 조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원매가 문단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어떻게 性靈說을 실천했는가에 대한 구체적 일면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飲酒詩 전형의 탄생과 계승

중국 고전시에 '飲酒'는 『詩經』에서부터 清代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소재로 다뤄졌다. 음주는 쾌락과 解憂의 도구이면서 동시에 종묘제례와 관혼상제의 중요한 절차와 맞물려왔다. 이렇듯 음주는 양식화, 형식화되면서 더욱 개인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반면 음주 과정에서 나타나는 몽롱한 신체적 반응이나 통제력 상실은 개인적 패망이나 국가적 안위를 위협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이해되어 예교적 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지적받았다.

중국 고대사회에서 시가 창작의 소재로 음주가 성행되는 계기를 마련한 시인은 단연 東晉의 陶淵明(365-427)이었다. 도연명은 전원생활 속에서 음주에 기탁하

不及則涼, 太過則老, 近火則味變, 須隔水炖, 而謹塞其出氣處才佳. 取可飲者, 開列于後.”(袁枚 著, 王英中 交點, 『隨園食單』『袁枚全集5』)

며 무질서한 사회에 대한 분노를 넘어선 초월적 경지에 이르고자 하였다. 즉 도연명은 세상과 격리된 전원에서 안정되고 소박한 생활을 추구하였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음주행위는 담담하고 自然스런 자신의 가치관을 대신하는 기호로 사용되었다. 도연명이 실천한 음주의 풍류문화는 문인사회에서 고품격 생활방식으로 수용되었다. 도연명 사후 이백 역시 술을 매개로 신선세계를 추구하였는데 취중 狂言에서 오는 과장적, 해학적, 화려함 속에 절대고독의 슬픔을 특징으로 하였다.⁵⁾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음주시는 표면적으로는 낭만적이고 느긋한 정신적 안정감을 나타내면서 그 이면에는 세상에 대한 역설적 저항을 담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이들의 음주행위는 삶에 대한 자포자기가 아닌 도덕적 절개와 생명력 회복을 위한 처절한 선택이었다.

도연명의 음주 관련 작품 중에 「飲酒」 20수는 역대 문인에 의해 모방되었고 도연명의 정신을 계승한 상징적 기호로 작용하였다. 특히 그의 작품 곳곳에 나타난 도덕적 절개의 표출은 후대 문인들이 본받아야 할 덕목이 되었다.

鍾嶸이 도연명의 시를 처음 주목한 이래 점차 많은 후인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 도연명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갈렸다. 현실 참여정신이 부족하다는 비판적 태도도 있었지만, 盛唐의 李白과 白居易를 중심으로 현실을 초탈한 전원 생활의 방식과 자신의 취향을 즐기며 고상한 인격을 추구하고자 하였던 의지가 높이 칭송되었다.⁶⁾ 예를 들어 白居易는 「效陶潛體詩十六首」에서 이상적인 인격자로 도연명을 추종하였다.⁷⁾

「效陶潛體詩十六首」其十二

我從老大來, 나는 그 분을 따라,
竊慕其爲人. 남몰래 그 인품을 사모하였네.
其他不可及, 다른 건 미칠 수 없어도,
且效醉昏昏. 술에 취해 혼미해지는 건 잠시 본받을 수 있다네.

...

5) 서유원, 장창호, 「도연명과 이백 음주시의 성격 비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제20집, 2010, 273-277쪽.

6) 최일의, 앞의 논문, 93쪽.

7) 윤석우, 「음주시에 나타난 중국인의 정신세계」, 연세대중문과박사논문, 2005, 237쪽.

백거이는 도연명의 인품을 사모한 나머지 도연명이 즐겼던 음주행위를 본받겠다고 말하였다. 여기서 음주행위는 古人에 대한 찬미를 표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양식이었다. 또한 백거이는 도연명의 「五柳先生傳」을 본떠 「醉吟先生傳」을 지었는데 취중상태를 통해 신분, 부귀영화, 시간의 추이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경지에 이를 수 있음을 말하였다.

취하고 읊는 것이 서로 이어져 마치 순환하는 듯하네. 이로 말미암아 신세가 꿈같고 부귀가 뜬구름 같고 천지가 장막과 방석 같으며 백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듯하게 흥미한 채 늙음이 장차 오리란 것도 모르는데, 옛날에 이른 바 술에서 보전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니 스스로 취음선생이라 불렀다.⁸⁾

이처럼 역대 유명 문인의 손을 거치면서 취중상태는 이성적 판단이 취약해진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세속에서는 이를 수 없는 고매한 정신세계로 합리화되었고 그 중심에는 도연명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후 宋代로 갈수록 도연명에 대한 열기는 더욱 뜨거워져 「화도음주시」를 비롯한 음주시가 굳건한 계통을 이루게 되었다. 최일의 교수는 그 배경에 대해 歐陽修의 고문운동, 梅堯臣의 시문혁신운동, 理學의 淸心寡慾사상, 그리고 도연명의 질박하고 평담함을 극찬했던 蘇軾의 영향이 컸다고 말하였다.⁹⁾ 소식은 모두 109수의 화도시를 지어 도연명에 대한 존경심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었다. 그 가운데 「和陶飲酒二十首」는 元祐 7년(1092) 56세에 지은 것으로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창작 동기를 밝혔다.

나는 주량이 매우 적지만 늘 잔을 드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 취한 채로 앉아서 잠이 드는데 남들은 취했다고 하나 나는 정신이 또렷하여 취했다고도 깨었다고도 할 수 없었다. 양주에 있을 때 술을 마시고 낮이 지나면 곧 술자리를 끝냈다. 객이 돌아가면 옷을 풀고 다리를 쭉 뻗은 채로

8) “醉吟相仍，若循環然。由是得以夢身世，雲富貴，幕席天地，瞬息百年，陶陶然，昏昏然，不知老之將至，古所謂得全於酒者，故自號爲醉吟先生。”

9) 최일의, 앞의 논문, 94-96쪽.

앉아 있는데 종일 즐겁기에는 부족하나 여유로웠다. 이로 인해 도연명의 음주시 20수에 화답하게 되었다.¹⁰⁾

주량이 많지 않았던 소식은 적은 술에도 곧 취기에 빠졌고 일시적이긴 하나 정신적, 신체적 자유를 즐길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도연명이 자신의 서문에서 밝힌 “한가로이 살면서 즐거움이 적어 ... 취한 뒤 곧 몇 구절을 지어 스스로 즐겼다”¹¹⁾는 ‘自娛’의 목적과 유사하다. 소식은 「和陶飲酒二十首」에서 도연명보다 부족한 인물로 자신을 나타내었다. 이는 고인에 대한 추종에서 비롯된 관습화된 겸양의 표현이었다. 도연명을 따라한 음주행위 역시 실제적 취향이 아닌 관습적 모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和陶飲酒」其一

我不如陶生,	나는 도연명 선생만 못하여,
世事纏綿之,	세상사에 얽히며 살았네.
云何得一適,	어찌 한순간 자적인 때를 얻었다고,
亦有如生時,	또한 선생만한 때가 있었다고 말하겠는가.
...	
偶得酒中趣,	우연히 술 속의 흥취를 얻으면,
空杯亦常持,	빈 잔이라도 또한 늘 잡는다네.

또한 소식은 「飲酒」其十二에서 “오직 취할 때 진실 있다네(惟有醉時眞)”라고 하여 취중상태에서 느끼는 감정을 진실한 것으로 보았다. 소식은 도연명의 작품에 나타나는 세상의 참여에 대한 미련과 갈등에 대한 논의는 축소하고 취중상태에서 느끼는 황홀경이나 도연명의 인품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도연명이 술을 빌리지 않고서는 자신의 속내를 털어내는 데 소극적이었던 것처럼 후대인들은 도연명과 그의 음주습성에 기탁하여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내려 하였다.

清代로 가면서 이러한 풍조는 줄곧 계승되어 ‘和陶詩’라는 독자적인 유형이 정

10) “吾飲酒至少，常以把盞爲樂。在往頽然坐睡，人見其醉，而吾中了然，蓋莫能名其爲醉爲醒也。在揚州時，飲酒過午輒罷。客去解衣盤礴，終日歡不足而適有餘。因和淵明飲酒二十首。”(蘇軾，「和陶飲酒序」)

11) “余閑居寡歡，…既醉之後，輒題數句自娛。”(陶淵明，「飲酒序」)

착되기에 이르렀다.¹²⁾ 이 과정 속에서 음주행위는 개인적 기호나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다. 도연명의 도덕적 절개를 부각시킬수록 和陶飲酒詩의 창작은 儒家형 지식인임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었고 이외에도 다양한 층차를 전하는 수단이 되었다. 즉 음주와 풍류를 즐기는 及時行樂의 쾌락적 일면에서부터 懷才不遇의 슬픔, 현실 비판, 도덕적 절개를 품은 君子, 현실 문제를 초월한 대범한 隱者, 더불어 음주시 창작의 능력까지도 포괄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몽롱한 취중 상태는 得道의 경지로까지 비유되었으니 음주시를 창작하는 것은 결국 성현의 대열에 동참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었다. 그래서 도연명 이후 역대 시인들은 음주시 창작을 통해 懷才不遇의 복잡한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출구가 되었고 和陶詩란 모방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현실도피에 대한 직접적인 사회적 비난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和陶詩가 성행할수록 도연명은 실패한 정치인이자 현실도피의 일면보다는 때를 잘못 만난 고결한 인품의 도덕적 군자상으로 전형화되었던 것이다. 후인들은 이렇게 고인이 생산한 음주시의 그늘에서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일시적이나마 긴장에서 벗어난 휴식을 즐기고자 하였던 것이다.

3. 원매 불음주시의 특징

1) 음주시 계보 이탈에 대한 근거

清代에도 황실은 여전히 주자학을 통치이념으로 택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明末의 양명학에서 발단된 주자학에 대한 회의가 지속되고 있었다. 주자학 추종자들이 벌인 주장들은 儒家 이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삶을 위한 건강한 자양분이 아니라 주자학 외에 모든 것을 부정하는 천편일률적인 도학적 질서만을 강요했다고 비판받았다. 개인이나 사람은 없고 오로지 주자학이란 이론만 존재했던 것이다. 게다가 明朝가 멸망하면서 주자학의 실제적 가치에 대한 의문이 더욱

12) 최일의, 앞의 논문, 88쪽.

깊어져 朱子の 해석을 배제시킨 경전 자체에 대한 탐독이 성행하였다.

원매 또한 주자학과 송대 유학자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였다. 周公과 孔子가 추구했던 본래 유가의 성향과 달리 불교 선종의 요인이 유입되어 달라졌으며 또한 파벌을 조성하고 계통을 만들어 道의 의미를 축소시켰다고 말하였다.¹³⁾

송학의 오랜 폐단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 주공과 공자의 혼령이 있다면 반드시 지하에서 탄식하며 분노할 것이다.¹⁴⁾

송유는 먼저 불가를 배우고 후에 유가를 배워 사람들에게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서 회로에락이 나타나지 않을 때의 氣象을 깨닫게 가르쳤다. 이것은 모두 은근히 선종에 물든 것이라 모범으로 삼을 수 없다.¹⁵⁾

후대 유학자들이 道 외에 統자를 더 붙여서 오늘은 위에 두고 내일은 아래에 두고 마치 형체가 있는 것처럼 건네고 물건처럼 간직하였다. 道는 매우 공적인 것인데 돌연 사사롭게 대했고, 道는 매우 광범위한 것인데 돌연 협소하게 만들었으니 비루하도다!¹⁶⁾

원매는 송학과 송유에 의해 경전의 원의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통을 만들고 파벌을 조성하여 공적인 객관성이 떨어지게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경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원매는 六經 그 자체의 원의를 탐구하는 데 매진하고 역대 고인 가운데 三皇五帝, 禹王, 周公, 孔子, 莊子 등을 추종하였다. 반면 그 후대의 인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음의 「不飲酒二十首」其八에서는 부처와 노자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비판하였는데 술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음주자 역시 이와 동일하다고 보았다.

13) 홍혜진, 「18세기 江南 도시 문예장과 袁枚의 글쓰기」, 서울대중문과박사논문, 2015, 54-55쪽.

14) “宋學流弊，一至于此。恐周、孔有靈，必歎息發憤於地下。”(「與程戡園書」, 『小倉山房文集』 권 19)

15) “宋儒先學佛，後學儒，乃有教人瞑目靜坐，認喜怒哀樂未發時氣象，此皆陰染禪宗，不可爲典要。”(「再答彭尺木進士書」, 『小倉山房文集』 권 19)

16) “後儒沾沾於道外增一統字，以爲今日在上，明日在下，交付若有形，收藏若有物。道甚公，而忽私之；道甚廣，而忽狹之。陋矣!”(「代潘學士答雷翠庭祭酒書」, 『小倉山房文集』 권 17)

其八

名教有樂地,	명교에 즐거운 것이 있긴 하나,
一誤殊難曉.	한 번 오인하면 정말 깨닫기 어렵네.
英雄與文人,	영웅과 문인들,
往往託佛老.	자주 부처와 노자에 기탁하였네.
匪自矜清超,	스스로 맑고 초일함을 으스대지 않으면,
卽時貪壽考.	곧 때마다 장수를 탐할 뿐이었네.
譬如飲酒人,	술 마시는 사람이,
非此難自了.	술이 아니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다네.
吾學無不窺,	내가 배움에 살피지 않은 것이 없는데,
惟憎二氏書.	유독 불교와 도교의 글은 싫어했다네.
看則縮其額,	보기만 하면 이마가 쩡그려져,
如嗜菖蒲菹.	마치 창포절임을 즐길 때와 같다네.
大道有周孔,	대도는 주공과 공자에게 있고
奇兵出莊周.	기이한 방법은 장자에게서 나왔네.
橫絕萬萬古,	오랜 옛날을 가로질러 끊어버리면,
此外皆蚍蜉.	이외엔 모두 말개미 같은 것뿐이네.
君請擇於斯,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것을 선택하시지,
何事更他求.	무슨 일로 또 다른 것을 구하는가?

원매는 '萬萬古'의 시절과 그때의 주공, 공자, 장자가 추구하였던 것을 근원으로 삼고자 하였다. 불가나 노자에 비하면 유가에 대해 우호적인 편이었으나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였다. 다음의 「子才子歌示莊念農」에서는 「不飲酒二十首」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자신의 뜻을 밝히고 있다.

六經雖讀不全信, 육경은 비록 읽었지만 전적으로 믿지 않아,
 斟酌孔道微茫, 周公과 孔子의 전적을 교감, 판단하며 심원한 이치를 탐구하였네.

이를 통해 원매가 육경을 신뢰하고 주공과 공자를 섬겼지만 그에 의존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경전의 이치를 추구하고자 하였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가장 근원적인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합리적인 예우를 갖추었을 뿐 원매의 최종 목적지는 고인이 아닌, 자신과 본인이 추구하는 본질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不飲酒二

十首」其六에서도 “내가 있음을 내가 모르면서 또 무엇을 말하리오?(我不知有我, 而又奚云云?)”라고 하였다. 원매는 역사상 가장 시원적인 三皇五帝의 업적을 찬미하며 동시에 자신의 존재감도 함께 드러내고자 하였다. 원매는 이들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삼황오제에 뒤지지 않는 功名人의 자질을 당당히 말하고자 하였다. 후대인이 겪고 있는 복잡다단한 문제와 고단함을 호소하며 인생살이에 대한 자신만의 해법을 말하였다. 그래서 제7-8구에서 ‘仁義’에 대해 ‘自然’으로 맞서며 삶의 가치를 능동적으로 찾아 나섰음을 말하였다.

其十一

古來功名人,	예로부터 공명인은,
三皇與五帝.	삼황과 오제이라.
所以名赫赫,	이름이 빛나는 건,
比我先出世.	나보다 먼저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이라.
我已讓一先,	내가 이미 앞서는 것을 사양했으니,
何勞復多事.	어찌 또 많은 일을 수고롭게 여기리오?
平生行自然,	평생 자연스럽게 행하느라,
無心學仁義.	仁義를 배우는 데 무심하였다.
婚嫁不視歷,	혼인 때에는 사주를 보지 않고,
營葬不擇地.	장례를 지낼 때에는 땅을 고르지 않았다.
人皆謂我危,	사람들은 모두 내가 위험할 거라 말하나,
而我偏福利.	나는 행복하게만 살았다.
想作混沌人,	혼돈의 사람이 되고 싶어,
陰陽亦相避.	음양 또한 서로 피해 갔다네.
灌花時雨來,	꽃에 물을 주려면 마침 비가 내렸고,
彈琴山月至.	거문고를 켜려하면 산에 달이 떴다네.
天地亦偶然,	천지 또한 우연이었겠으나,
往往如吾意.	자주 내 뜻과 같았다네.

원매는 ‘自然’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그와 대립되는 것으로 仁義, 사주, 풍수를 거론하며 인위적인 것에 반대하였다. 즉 사상계와 문단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스며든 고질적 관행까지도 완강히 거부하며 개인의 주체적 판단능력과 사고행위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다. 역대 사상, 역대 성인에 앞서

자신의 뜻과 존재적 가치를 대범하게 내세우고 무언가에 의존하는 소극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매는 모든 사고의 초점을 자신에게 맞추었다. 스스로 '混沌人'을 자처하며 태초의 인간이 가진 고유한 성질을 품고 오로지 자신의 뜻에 따라 행복하게 살았노라 자신하였다. 이것이 바로 원매가 주장하였던 개인 '性情'의 실천인 것이다.

원매는 三皇五帝, 禹王, 周公, 孔子를 주요한 추종의 대상으로 국한시켰는데 사실 이들은 중국 고대사를 이끄는 가장 이상적이고 강력한 구심점으로 중국 고대인들의 보편적 추종 대상이었다. 이들을 제외하면 원매는 특별한 모방의 대상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것은 동시대의 문인들에게 자기만의性情에 근거하여 스스로 창작에 임하는 자율적 의지를 강조하려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개개인의 성정은 결코 다른 이에게 표절될 없는 고유한 것이므로 이로써 전대에 없는 독자적인 일면을 창출해 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원매가 스스로 불음주자임을 내세우는 것 또한 타인과 다른 자신만의 고유한 특징을 부각시키려는 것이었다. 자신이 백거이를 닮았다는 평판에 대해 「讀白太傅集三首」를 지어 서로의 차이를 밝히고자 노력하였는데 여기서도 불음주를 거론하였다.

其一

人道農詩半學公, 사람들이 “당신 시가 절반은 백거이를 배웠소”라 하여,
 今看長慶集纔終, 오늘 『白氏長慶集』을 비로소 모두 읽었네.
 宦途少累神先定, 벼슬살이 덜 연루되었음은 정신이 먼저 정한 것이고,
 天性多情句自工, 천성이 다정하여 시가 자연 공교해졌네.
 手把酒杯仍獨醒, 술잔을 들고도 여전히 홀로 깨어있고,
 口談佛法豈由衷, 佛法을 말한들 어찌 마음에서 나온 것이겠는가?
 誰能學到形骸外, 누가 형체 밖까지 배울 수 있으리오?
 願不相同正是同, 닮지 않길 원했지만 바로 같아진 것이네.

원매는 음주와 불법을 싫어하는 이유로 백거이와 선을 그었다. 그리고 형체 밖의 정신세계를 배우고 모방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임을 말하였다. 따라서 원매

의 「不飲酒二十首」는 자신이 결코 古人과 같은 수 없다는 주체적인 사고에서 발단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형체 밖形骸外'은 원매가 '성령' 혹은 '성정'이라 표현한 것으로 다음에서 그가 추구하는 시적 지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시는 사람의 성정이다. 가까이 신변에서 취해도 충분하다. 그 말이 마음 동요시키고 그 아름다움이 시선을 빼앗으며 그 맛이 입에 맞고 그 소리가 귀를 흥겹게 하면 곧 뛰어난 시이다.¹⁷⁾

종래로 천부적 재능이 줄렬한 사람은 격조에 대한 얘기는 좋아하면서 흥취는 이해하질 못한다. 왜 그럴까? 격조는 빈 틀 같아서 가락은 쉽게 그려낼 수 있으나 풍취는 전적으로 성령을 써내는 것이라 천부적 재능이 아니면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¹⁸⁾

이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원매는 도연명을 추종하였던 관행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후대인이 좁아지고 있었던 고인에 대한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창작을 유도하고자 한 것이다. 즉 외부의 규범과 권위를 부정하고 자신에게 내재된 기량에 의지하여 스스로 현재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陶淵明 음주시의 전형성 해체

원매는 도연명을 따르지 않고도 자신의 입장에서 술의 의미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 도전은 「不飲酒二十首」의 제목¹⁹⁾에서부터 분명하여 도연명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자신의 천성을 앞세우며 음주와 자신을 분리시켰다. 원매는 다음의 작품에서 음주에 대한 거부가 신체에서부터 나타난다고 말하고 음주를 즐기는 세상과 자신을 격리시켜 '桃源人'이라 칭하였다. 그리고 음주 대신 '書味甘'으로 자신의 취향을

17) “詩者，人之性情也。近取諸身而足矣。其言動心，其色奪目，其味適口，其音悅耳，便是佳詩。”(『隨園詩話·補遺』 권1)

18) “從來天分低拙之人，好談格調而不解風趣，何也？格調是空架子，有腔口易描，風趣專寫性靈，非天才不辦。”(『隨園詩話』 권1)

19) 「도연명에게 음주 20수가 있는데 나는 천성이 음주를 좋아하지 않아 반대로 불음주 20수를 짓다(陶淵明有飲酒二十首余天性不飲故反之作不飲酒二十首)」.

부각시켰다.

其二

醉鄉去中國,	취중 세계가 중원에서,
不知幾萬里.	몇 만 리 떨어진지 몰랐다네.
偶一問其津,	우연히 나루터를 물었는데,
身熱頭痛耳.	몸에 열이 나고 머리만 아팠네.
所以桃源人,	도화원 사람이라,
雖隣莫通使.	이웃해도 오갈 수 없었던 것이네.
惟有書味甘,	오직 책에서만 단맛을 느끼는지라,
行行堪沒齒.	읽고 또 읽으며 일생을 마치려하네.
禹王大聖人,	우왕은 대성인인데,
先我惡甘旨.	나보다 먼저 술을 싫어하였네.
千鍾與百榼,	천 개의 술병과 백 개의 술통.
倦勤從此始.	政事を 게을리 한 것이 여기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네.

원매는 ‘불음주’의 공통점을 지닌 인물로 禹王을 말하며 음주 부정의 강력한 근거로 삼았다. 그리고 정치적 의미에 있어 음주의 무익함을 지적하였다. 원매는 불음주의 이유를 개인적인 것에서 사회적으로 넓혀 그 의미를 확장시키고 자신의 기호에 대한 진정성을 높였다.

이처럼 원매에게 음주란 개인 취향의 문제일 뿐이지, 역대 문인의 시풍이나 도덕적 기준, 사회적 요구조건, 혹은 성현으로 추앙되었던 도연명의 정신이 아니었다. 원매가 其一과 其九에서 도연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역시 고인에 대한 찬양은 아니었다.

其一

淵明與劉伶,	도연명과 유령은,
開口不離酒.	입만 열면 술을 떼지 못하였네.
終竟兩人賢,	결국 두 사람 모두 현인이었는데,
果然爲酒否?	과연 술 때문이었을까?
我自赴華胥,	내가 절로 화서국으로 간다면
不煩杜康引.	두강이 끌어도 괴로워하지 않으리.

酒味吾不知, 술 맛은 몰라도,
酒意吾能領. 술 뜻은 이해할 수 있으니.

위의 시에서 원매는 화도음주시를 의식한 듯 가장 먼저 도연명을 거론하였는데 도연명과 유령이 음주 행위로 얻었던 명성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보이며 음주와 현인 사이의 등배관계를 부정하였다. 그리고 黃帝가 꿈에서 갔다는 華胥國같은 유토피아라면 술을 마실만하겠지만 설사 술맛을 몰라도 그 뜻을 이해하는 데에는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였다. 또 다음 작품에서는 도연명의 「賁子」²⁰⁾를 언급하고 다섯 아들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아 술로 달랠던 일화를 다뤘는데 아들의 유무와 음주의 여부로 자신을 도연명과 구분 지었다.²¹⁾

其九
陶令賁子詩, 도연명의 「賁子」시에,
愚多賢者少, 어리석은 자는 많고 어진 이는 적다하네.
未免心戚戚, 울적한 마음 면할 수 없어,
借酒解懷抱, 술을 빌려 회포를 풀었다지.
我今雙無之, 나는 지금 두 가지가 모두 없으니,
陶閑亦云好, 도연명이 들으면 또한 좋다고 말하리.
無所藉杯酌, 술잔을 빌릴 것도 없다네,
匪我求童蒙, 나는 아이를 바라지 않으니.
...

원매는 도연명의 전원생활, 인품 또는 질박하다고 평가되었던 시풍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도연명이 술을 마셨던 여러 이유 가운데 자식 문제를 들어

20) “다섯 아들이 있으나 모두 종이와 붓을 좋아하지 않네. 아서는 이미 16세인데 게으름이 정말 짝할 이가 없네. 아선은 15세가 되어 가는데 글의 작법을 좋아하지 않네. 웅과 단은 13세인데 육과 칠을 모르네. 통은 아홉 살이 되는데 배와 밤만 찾을 뿐이라네. 운명이 진실로 이와 같으니 잠시 술이나 들어야겠다. (雖有五男兒, 總不好紙筆. 阿舒已二八, 懶惰故無匹. 阿宣行志學, 而不愛文術. 雍端年十三, 不識六與七. 通子垂九齡, 但覓梨與栗. 天運苟如此, 且進杯中物.)” (「賁子」)

21) 원매는 25세에 결혼하였으나 아들이 없어 乾隆 40년(1775) 60세에 사촌 동생 袁樹의 아들인 조카 袁通을 양자로 삼았다. 이후 건륭 43년(1778) 63세에 첩 鍾姬가 드디어 아들을 袁遲를 낳았다. 「不飲酒二十首」는 원매가 아들이 없던 44세에 지은 것이다.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였다. 아들이 없던 원매는 자연 술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기에 도연명에 비해 훨씬 초탈한 삶이었음을 말하고자 하였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들이 없는 것은 매우 수치스런 일이었는데 이를 해학적으로 표현하며 음주를 거부하는 자신의 소신을 나타내었다. 음주에 대한 원매의 견해는 다음 작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其五

有目必好色,	눈이 있으면 반드시 여인을 좋아하고,
有口必好味.	입이 있으면 반드시 맛있는 걸 좋아하는 법.
戒之使不然,	경계하고 못하게 하면,
口目成虛器.	입과 눈이 모두 헛된 도구일 뿐이네.
縱之使無涯,	멋대로 끝없이 하게 두면,
我又爲渠累.	나 또한 그에 연루되겠지.
聖人善調停,	성인은 조절을 잘하고,
君子素其位.	군자는 자신의 자리를 편히 여겼다네.

원매는 好色과 好食의 욕망에 대해 긍정하면서도 반드시 절제의 미덕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²²⁾ 이러한 태도는 도연명이 「五柳先生傳」에서 취중세계에 대해 갈망하는 것²³⁾과 매우 대조된다. 도연명은 이러한 취기 상태를 통해 삶의 애환에서 탈피하여 물아일체의 경지에 오르길 염원하였다. 혼란한 東晉 시기를 겪으며 받았던 정신적 고통, 고독, 가난 그리고 회재불우의 심정을 술에 기탁하여 해소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에 그의 작품에는 세속에 대한 미련과 포기가 중첩되어 나타났다. 다음 작품에서 도연명은 삶에 대한 고단함을 토로하며 세상에 자신을 알아주는 이가 없음을 한탄하였다.

22) “오직 술에는 양이 없었으나 술에 취해 흐트러질 정도로 마시지 않았다. (唯酒無量, 不及亂)” (『論語·鄉黨』)

23) “천성이 술을 좋아하였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늘 술을 마실 수는 없었다. 친구들이 이와 같음을 알고 간혹 술상을 차려 초대하였는데 마셨다하면 번번이 모두 마시며 반드시 취하길 바랐다. (性嗜酒, 而家貧不能常得酒. 親舊知其如此, 或置酒而招之, 造飲輒盡, 期在必醉)” (「五柳先生傳」)

陶淵明「飲酒」其十六

...

竟抱固窮節,	결국 가난과 절개만 지닌 채,
飢寒飽所更.	배고픔과 추위를 실컷 겪었네.
敝廬交悲風,	허름한 집은 서글픈 바람만 오가고,
荒草沒前庭.	거친 풀에 앞뜰도 없어졌네.
披褐守長夜,	베옷 걸치고 긴 밤을 지새는데,
晨鷄不肯鳴.	새벽닭은 울려고 하지 않네.
孟公不在茲,	劉龔이 여기 없으니
終以翳吾情.	끝내 내 마음이 가려지겠구나.

陶淵明「飲酒」其十四

...

不覺知有我,	내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니,
安知物爲貴.	어찌 사물이 귀한지 알겠는가!
悠悠迷所留,	아득히 머물 곳을 헤매는데,
酒中有深味.	술 속에 깊은 맛이 있네.

도연명은 취중세계를 통해 무고통, 무감각한 세계로 진입하길 원했다. 나와 사물의 경계를 잇는 물아일체의 경지에 도달하여 세속을 초월하고자 하였는데 그 매개가 바로 음주였던 것이다. 이렇듯 도연명의 취중세계는 현실과 반대되는 도피처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것은 「飲酒」其九와 같은 작품이었다. 도연명은 「漁父辭」를 빌어 자신을 屈原과 같은 올곧은 인격체로 묘사하고 혼탁한 세상에 동조하지 않고 홀로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다.

陶淵明「飲酒」其九

...

襁纓茅簷下,	“남루한 옷과 띠풀 처마 아래서는,
未足爲高栖.	고상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一世皆尙同,	온 세상 사람이 모두 함께하길 바라니
願君汨其泥.	원컨대 그대도 그 진흙을 휘저으십시오.”
深感父老言,	“어르신 말씀에 깊이 감사드리나,
稟氣寡所諧.	천성이 남과 어울리기에 부족합니다.

紆轡誠可學,	고삐 돌리는 것이 진실로 배울만하대도,
違已詎非迷.	내게 위배되는 것이니 어찌 미혹되지 않겠습니까?
且共歡此飲,	잠시 함께 이 술이나 즐기십시오.
吾駕不可回.	내 수레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처럼 도연명의 음주시는 세상의 미련에 의한 불안정한 심정과 세상과 결탁하지 않겠다는 깨끗한 의지가 교차되어 있다. 때론 술에 취해 즐겁게 놀겠다하고 때론 고독한 외로움에 서글퍼한다. 그러나 원매의 작품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음 작품에서 원매는 高士들의 삶이 지나치게 깨끗하여 무료하게 느껴진다고 말하였다. 이에 원매는 고매한 이들과 다른 길을 가겠다며 세상과 섞여 '餽其糟'를 할 수 있다고 말하며 도연명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其二十	
嘗讀高士傳,	「고사전」을 읽은 적이 있는데,
過潔亦無聊.	지나치게 깨끗하여 또한 무료하였다.
...	
我雖不飲酒,	내가 술은 마시지 않아도,
恰能餽其糟.	마침 지게미는 먹을 수 있을 듯.
雲閣自層層,	구름까지 닿는 높은 누각이 층층이 있고,
風裳必楚楚.	바람 나부끼는 치마 필시 산뜻하리.
燈園花萬重,	등불 주위로 꽃이 만 겹 이고,
屋聚書千古.	집안에 모아 놓은 책은 천고의 세월이네.
寄語於陵子,	오릉자에게 부치노니,
君輩徒自苦.	그대들은 그저 괴로울 뿐이겠지.

其八	
...	
英雄與文人,	영웅과 문인들,
往往託佛老.	자주 부처와 노자에 기탁하였네.
匪自矜清超,	스스로 맑음의 초월함을 으스대지 않으면,
卽時貪壽考.	곧 장수를 탐할 뿐이었네.
譬如飲酒人,	술 마시는 사람이,
非此難自了.	술이 아니면 스스로 완성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

또한 원매는 부처와 노자에 경도된 이들과 음주자를 같은 부류로 보았다. 술에 의존하는 것은 자신의 이성적 판단이나 실제 능력에 의거하지 않은 것이므로 불가나 도가에 심취하여 의존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다음 작품에서는 자신의 타고난 '深趣'를 내세우며 술이 없어도 자립적으로 삶의 여흥을 즐길 수 있다고 자신하였다.

其十四

我愛王思遠,	나는 왕사원을 좋아하는데,
絺服何燦爛.	검은 무복이 얼마나 찬란했던가!
遇所勿經懷,	영합할 것을 마음에 두지 않아,
短衣不掩肝.	짧은 옷이 정강이를 가리지 못했네.
又愛桂陽王,	또한 계양왕을 좋아하는데,
興到詩酒濃.	흥이 오르면 시와 술이 깊어졌네.
偶意有所廢,	영합할 뜻을 그만두어,
戚友不相通.	친지, 친구와도 만나지 않았네.
君去我欲眠,	그대는 가시게 내가 졸리니,
君眠我亦去,	그대가 잔다면 나 또한 떠나가리.
不藉醉爲辭,	취기를 빌려 사양할 일도 없고
天懷有深趣.	깊은 흥취는 타고 났다네.

원매는 왕사원과 계양왕을 얘기하였는데 이들 모두 세상과 영합하지 않고 은거했던 이들이다. 원매는 이들을 추종하는 듯하면서도 마지막 네 구에서는 의도적으로 도연명이 취기 때문에 손님을 돌려보낸 일화²⁴⁾를 인용하며 도연명의 진솔한 면보다는 술로 인해 벌어지는 불편한 상황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세상에 영합하거

24) “도연명은 음물을 무르면서도 무현금 하나를 갖고 있었는데 취기가 오를 때마다 그것을 타며 자신의 마음을 기탁했다. 귀천을 따지지 않고 그에게 가기만 하면 그때마다 술상을 마련해 함께 마셨는데, 그가 먼저 취하게 되면 곧 손님에게 ‘취기가 올라 자고 싶으니 그대는 이제 가시지요’라고 말했다. 그의 진솔함이 이와 같았다. (淵明不解音律, 而蓄無絃琴一張, 每酒適, 輒撫弄以寄其意. 貴賤造之者, 有酒輒設. 淵明若先醉, 便語客. ‘我醉欲眠, 卿可去.’ 其真率如此) (『宋書·隱逸傳』)

나 다른 것에 의지 하지 않고 자신의 천성과 능력에 맞춰 주체적으로 살려는 의지를 나타내었다. 이에 원매는 현실 도피적이고 의존적인 나약한 태도를 비판하였는데 이 또한 도연명과 다른 특징이다. 먼저 도연명의 다음 작품을 살펴보면 길 잃은 새가 소나무를 만나 안식을 취하게 된 내용이다.

陶淵明「飲酒」其四

栖栖失群鳥,	허둥지둥 무리 잃은 새,
日暮猶獨飛.	날이 저물었는데도 홀로 날고 있네.
裴回無定止,	배회하며 멈출 곳이 없으니,
夜夜聲轉悲.	밤마다 우는 소리 슬프구나.
腐響思清遠,	세찬 울음소리는 맑고 아득한 곳을 생각하니,
去來何依依.	오고감에 어찌 그리 그리워하는가.
因值孤生松,	이윽고 홀로 자라있는 소나무를 만나,
斂翮遙來歸.	날개 거두려 멀리서 돌아왔네.
勁風無榮木,	거센 바람에 무성한 나무 없는데,
此蔭獨不衰.	이 그늘만큼은 홀로 쇠락하지 않았네.
託身已得所,	몸을 의탁할 곳 얻었으니,
千載不相違.	천년토록 떠나지 않으리.

무리에서 떨어진 갈 곳 잃은 새는 소나무를 발견하고 그 그늘을 안식처로 삼았다. 여기서 새는 도연명을 비유하는데 고독하고 나약하며 불안정한 상태이다. 도연명은 자연 앞에 한없이 의존적 존재로 등장하며 음주를 통해서야 세속을 초월한 정신적 평화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원매의 작품에서 자연은 불안정한 인간에게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다. 감상과 흥취를 더해주는 유희적, 오락적 공간이다. 이는 원매가 자립적인 인간으로 독립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이다. 이에 원매의 작품에 나오는 자연공간은 인간과 자연 모두가 활기를 띠고 있다. 원매는 소나무와 같은 도덕적 절개를 표상하는 전형적인 이미지나 기탁처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삶의 목적이 모두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원매의 「不飲酒二十首」에는 도덕적 절개를 강조하는 내용이 없다. 또한 장자식의 해탈도 없다. 둘째 음주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였다. 셋째 자신의 가치관이 매우 확실하여 갈등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도연명은 세속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불완전한 상태를 보이며 내적 충동을 일으켰다. 세상과 결탁하지 않겠다고 소리를 높이면서도 벼슬살이에 대한 미련과 회재불우의 고통, 가난한 삶에 대한 힘겨움이 그대로 드러나었다. 그리고 취중세계를 통해 자신의 현실에서 해방되곤 하였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는 결국 완전한 은자의 삶에 도달할 수 없었음에도 후인들에 의해 칭송되었다. 이에 대해 원매는 도연명 이후 음주자들의 관습적이고 모방적 행위에 맞서며 불음주자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도연명의 음주시를 해체하고 이백, 백거이, 소식으로 이어지는 음주시 계보로부터 이탈하여 자신만의 자유세계, 삶의 방식을 추구하려는 당찬 의지를 보여주었다.

3) 현실에 대한 유쾌한 자기만족과 자립

원매의 「不飲酒二十首」는 자신의 삶과 본인의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다. 관직을 그만둔 후 그는 당당히 생계형 전업문인임을 얘기하며 출판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였다. 대개 문인들은 관직을 그만두면 버릇처럼 은자의 삶을 사노라하며 고결한 초인의 길을 걷는 것처럼 자신을 묘사하였다. 그러나 원매는 其二十에서 高士들의 삶이 따분하다고 말하고 이와 상반된 유쾌한 자기 일상을 적극적으로 묘사하였다. 도연명처럼 도덕적 절개를 지향하거나 굴원처럼 한 치의 용납도 불허하는 깨끗한 태도를 고수하지 않았다. 한쪽으로 치우친 편파적인 선택을 버렸다. 이런 이유로 그의 작품에는 자신이 의지하고 싶은 대상이 등장하지 않았다. 실제 주변에 있는 지인과의 술자리, 자신의 재력을 필요로 하는 하층민과의 상부상조, 가족과의 한가로운 낚시 등을 묘사하며 한가롭고 평온한 일상을 소개하였다.

其十五

躬耕吾不能,	몸소 밭갈기를 할 수 없지만,
觀耕園最便.	밭가는 것을 보는 데에는 수원이 가장 편하네.

水響叱牛聲,	물소리는 소를 나무라는 소리 같고,
土色老農面.	흙빛은 늙은 농부의 얼굴 같네.
老農前致詞,	늙은 농부가 전에 글을 보내,
秋災求減租.	가을 재앙에 세금을 줄여달라고 청했네.
我乃備其力,	나는 그의 힘을 고용하여,
以有易所無.	가진 것으로 없는 것을 바꾸었네.
農夫喜聳肩,	농부가 기뻐 어깨를 들썩이고,
欣欣來負輿.	기쁘게 와서 가마를 짊어지네.
我亦恣所往,	나 또한 가는 대로 맡기고,
看花招其徒.	꽃을 보고자 친구들을 불렀네.
春風熏玉顏,	봄바람이 옥 같은 얼굴에 스미고,
秋月澄冰壺.	가을달이 차가운 술병에 맑게 비추네.
旁人誤生疑,	옆 사람은 잘못 의심하며,
先生醉矣乎?	선생께서 취하셨느냐 말하네.

이렇듯 그는 주변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을 추구하였다. 이는 합리적이고 주체적인 행위를 강조한 것으로 전체 작품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나있다. 이러한 자기만족적인 태도는 모두 자신의 실질적 경험을 근거로 하고 있어 이백처럼 과장된 호기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其四

天地無終極,	천지는 끝이 없으니,
風輪盪不禁.	풍륜으로 씻어내는 것을 금할 수 없고
不知古人古,	고인의 옛 것도 모르면,
安知今人今.	어찌 지금 것을 알 수 있으리오!
吾園二三月,	내 정원에서 2, 3월이면,
全家釣水濱.	전 가족이 물가에서 낚시를 하네.
彼得此亦喜,	저이가 얻으면 이이 또한 기뻐하고,
此失彼亦嗔.	이이가 잃으면 저이 또한 성을 내네.
適野獲天趣,	들판에 가서 천연의 정취를 얻어,
忘機蘊性眞.	욕심을 잊고 본성의 참됨을 쌓네.
自笑一家人,	스스로 웃나니 온가족이,
都遊羲皇世.	모두 복희씨의 세상에서 노닐을.
儀狄尙未生,	의적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

何由知酒味? 어찌 술 맛을 알리요?

위 작품에서 원매는 자신의 삶을 복희씨의 세상이라 말하며 불음주에서 오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모습을 묘사하였다. 원매의 小宇宙인 隨園은 자신만의 공간으로 복희씨 시대의 태평성세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 말하였다. 원매는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에 대해 확신을 갖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다음 작품에서는 관습적으로 굳어진 음주 행태를 거부하고 자신이 추구한 연회를 묘사하였다.

其三

客至如春風,	손님은 봄바람 같아서,
來者皆入室.	찾아온 사람이 모두 방으로 들어왔네.
率性任所言,	천성에 따라 말 나오는 대로,
寒暄各一一.	저마다 일일이 안부를 물었네.
可以具鷄黍,	닭과 기장밥이 있고,
可以聽瑤瑟.	노랫가락도 들을 수 있다네.
欲宿即張燈,	자고 싶으면 곧 등불을 켜주고,
解吟亦進筆.	시를 읊을 수 있으면 또 붓을 내주었네.
若問有酒否,	술이 있는지 묻는다면,
此事未可必.	음주는 필요치 않다하였네.

원매는 반가운 손님, 친절한 주인, 닭, 기장, 노래, 편안한 잠자리, 흥취 있는 詩會 등으로 충분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말하며 술을 제외시켰다. 원매는 자신의 취향에 맞춰 준비한 연회에선 음주가 결코 필수적 요인이 아님을 당당히 말하였다.

원매는 관직을 그만둔 이후 南京의 隨園에서 蘇州, 杭州, 揚州 등의 강남 도시를 오가며 생계형 문인으로 살았다. 결과적으로 그는 上層紳士 출신이면서 전업 문인으로 활동하여 생존 당시에 이미 재력과 명성을 누리게 되었다. 江寧현령을 사임한 이후 그가 선택했던 공간은 산수자연이 아닌 도시였다. 그럼에도 산수자연은 그에게 현실의 도피처나 자기위로를 위한 은신처로 묘사되지 않았다. 원매의

주변에 있는 자연은 모두 즐거운 감상의 대상이다. 원매는 각각의 객관 자연물이 지닌 생명력을 즐겼다. 다음의 작품에서 원매는 자신을 ‘幽人’에 비유하고 밤새 주변 환경을 즐기는 모습을 담았다.

其十二

風霽月色明,	바람 그치니 달빛 흰하고,
露影蒼苔上.	이끼 위로 이슬 그림자 지네.
幽人淸興發,	은자는 청아한 흥이 일어,
杖策成孤往.	지팡이를 짚고 외로운 길을 떠나네.
不知所尋誰,	누굴 찾는지 모르나,
寓目卽心賞.	마주치는 것마다 마음이 즐겁네.
隣人知未眠,	이웃사람들 내가 잠들지 않음을 알겠네.
水面篙聲響.	물 위로 상앗대소리 울리니.

원매는 은자의 흥이 일어 어두운 밤인데도 길을 나섰다. 비록 동행하는 이 없이 홀로 가는 길이었으나 자신의 시선에 들어오는 모든 것에 즐거움을 느꼈다. 원매는 즉흥적인 자신의 감흥을 직설적으로 쏟아내었다. 자신의 ‘淸興’이 새벽녘까지 끝나지 않았음을 말하며 그 즐거움의 깊이를 전하였다. 원매에게 자연은 즐거움을 선사하는 객관사물로 기탁처 혹은 위로처가 아닌 삶의 원동력을 높이는 근원이었다. 다음 시에서는 꽃내음을 맡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其十三

細雨過深竹,	가랑비가 우거진 대나무 사이로 내리니.
水影澄空雲.	물그림자 속 허공의 구름이 맑아지네.
不知何處花,	꽃이 어디 핀지 모르나,
微香如有聞.	은은한 향기가 나는 듯.
漸漸春風和,	점점 봄바람이 따뜻해지니.
時時芳草熏.	시시로 풀 향기 그윽해지네.
自書一片葉,	절로 한 조각 잎에 글을 써서,
告知雲中君.	구름 속 그대를 아노라 고하네.

꽃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지만 시인은 이미 그 향기를 만끽하며 점점 짙어지는

봄의 생명력을 절감하고 있다. 따스한 봄날의 여유, 더없이 화창한 봄바람, 어디서 부턴가 전해오는 그윽한 향기, 그 속에서 원매는 더 없는 삶의 환희를 즐기고 있다. 다음의 작품 또한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其十六

春陰漏日遲,	호린 봄 사이로 새어나와 햇살이 더딘데
嬌鳥啼花早.	어여쁜 새가 우니 꽃이 빨리 피었네.
群鳥音難分,	몹 새의 울음소리 구분하기 어렵고
但覺春懷好.	그저 봄이 좋다는 것만 알겠네.
既醒復重眠,	깨다가 다시 자려는데
紗窓碧烟曉.	비단 창에 푸른 연기 사이로 날이 밝았네.
啼鳥莫相催,	우는 새여 재촉하지 말게나
春夢儂猶少.	춘몽을 내가 아직 덜 꾸었으니.

잠결에 들리는 새소리는 생명의 용트림을 재촉하고 있다. 이렇듯 원매의 불음 주시에서 ‘새’는 생명력을 추동하는 역할을 맡았다. 햇살, 새소리, 그리고 꽃은 ‘그저 봄이 좋다는 것을 알겠네(但覺春懷好)’라는 시구를 이끌며 생명력의 발산에 대한 기쁨을 나타내고 있다. 연이어 새소리를 막고 이불을 귀까지 잡아당기며 잠을 청하려는 작자의 새벽녘 실랑이를 보이며 소박하고 정겨운 일상을 전하였다. 이렇듯 원매에게 자연은 심리적 안정을 위한 곳이 아니라 즐기는 공간이다. 물론 원매도 懷才不遇의 고통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원매는 직접적으로 토로하지 않았다.

其十

班家有婕妤,	반씨네 첩여가 있었는데,
稚齒入椒房.	어려서 궁실에 들어왔네.
自恃君王愛,	군왕의 총애를 믿고,
恩如海水長.	은혜가 바닷물처럼 장구하리가 여겼네.
一朝詠紈扇,	하루아침에 비단 부채를 노래하더니,
朱顏逐漸凋.	젊던 얼굴 점점 시들어갔네.
君王縱復召,	군왕이 설령 다시 부른다 해도,
終讓新人嬌.	결국 새 사람의 아름다움에 양보하고 말았네.
寂寂長信宮,	적적한 장신궁에서,

涔涔泣不止. 줄줄 눈물이 그치질 않았네.

...

원매는 지금껏 살아온 나날들을 담대하게 회상하였다. 실패와 좌절에 대한 감정을 극도로 아끼며 사리판단에 있어 주저함이 없었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스스로 터득한 삶의 방식 덕에 남들과 별다른 허물없이 지낼 수 있었다고 말하며 만족감을 보였다.

其十七

任事在人後,	일을 맡는 것은 남보다 뒤에 하더라도,
見事在人先.	일을 분별함은 남보다 먼저 해야 하지.
以之涉斯世,	그렇게 세상을 살면,
庶幾無尤焉.	거의 허물이 없게 된다.
吾年方垂髫,	내 나이 한창 더벅머리를 늘어뜨릴 때,
早已登賢書.	벌써 뛰어난 글을 써서 올렸지.
三十挂其冠,	삼십에 갓을 걸어두고,
四十白其鬚.	사십에 수염이 하얗게 새버렸다네.
味早易撤席,	맛을 빨리 느껴 쉽게 술자리를 치웠고,
遊早易回車.	유람을 빨리 하여 쉽게 수레를 되돌렸다.
一早無不早,	온통 빠르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未知死何如.	죽음이 어떠한지는 모르겠네.

원매는 생명의 유한함을 마주하면서도 술을 찾지 않았다. 원매는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천성에 따라 그리고 능력에 따라 살았음을 말하였다. 그는 결코 운명론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판단에 따라 주체적으로 살았다면 그 종점에 이르는 그 날까지 스스로 만족해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하고자 하였다.

4. 결론

원매의 「不飲酒二十首」는 ‘낮선’ 음주시이다. 원매가 이 작품을 지은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첫째는 자신의 세계에 국한된 것만을 쓰겠다는 의도이다. 둘째는 도연명의 음주시를 의식하지 않겠다는 대외적 발언이다. 이를 통해 본인이 주장했던 '性靈', '性情'의 표현을 스스로 실천하고자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는 역대 음주시에서 나타났던 양상들, 즉 나약한 존재로 인한 슬픔, 몽롱한 정신세계로의 도피, 과장된 호기, 유쾌한 현실 초월, 세상과 충돌 없는 기쁨, 그리고 술에서 깬 뒤에 몰려오는 허무감 등이 나타나 있지 않다. 원매의 작품에는 자신이 스스로 결정한 삶의 지표, 삶의 주체, 삶의 방식 등이 녹아 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의한 모든 상황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원매는 술기운에 이르는 고매한 경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주어진 상황을 모두 맨정신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원매의 「不飲酒二十首」는 곧 취중세계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단단한 자립의 의미를 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역대 중국인이 그랬듯이 원매도 聖人을 추종하였다. 그러나 원매는 본인 취향의 우수성과 정당성의 근원을 도연명이나 이백이 아닌 중국 고대사에 있어 원시적 성인인 그래서 호불호가 나눌 수 없는 三皇五帝, 禹王, 周公 그리고 孔子로 제한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모든 귀결은 진실한 '나'에 대한 이야기로 모았다. 음주를 개인적 취향의 관점으로 접근함으로써 음주시와 음주시 작가들이 서로 주고받았던 역사적, 사회적 의미의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이러한 불음주의 태도는 원매가 강조하였던 성령설과 맞물려 개인의 주체적 사고를 강조하고 개인 정체성을 나타내는 기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매의 「不飲酒二十首」는 전통과 창신 사이의 사회적 가치를 둘러싼 대립을 어떻게 해소하는지 보여준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중국 고대사회에서 고인의 텍스트는 후인의 도덕적 귀감이고 삶의 지표였다. 후인은 고인의 앞에서는 미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고인의 인품과 작품을 따라야했다. 이런 이유로 '擬古' 혹은 '復古'에 대한 지향은 단순한 베끼기라는 질타를 피할 수 있었다. 오히려 초학자라면 반드시 거쳐야하는 의무적인 훈련 과정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원매는 구태의연한 것을 거부하고 천성과 진실에 입각하여 제목소리를 내어야한다고 주장하

였다. 그 실천으로 송대 이후로 두드러지는 음주시의 모방적 태도를 비판하고 인품과 작품을 동일시하여 작품성보다는 도덕적 인품을 더 중시하였던 기풍에 제동을 걸었던 것이다. 竹林七賢, 도연명이 음주 행위를 통해 고독과 소외를 해소하고 불합리한 세상에 대한 저항을 표출하였다면 원매는 그것을 계승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삶을 대하였다. 자신이 축적한 술에 대한 지식을 정보로 제공하고 불음주의 온전한 상태에서 누리는 행복한 자신의 일상을 유쾌히 드러내었다. 원매가 보인 음주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곧 이성적 판단의 중요성을 나타내며 취기를 필요치 않는 삶에 대한 궁지를 담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매가 중시한 것은 오늘을 사는 개인 주체의 살아있는 감정선이다. 이 때문에 화도음주시의 기풍아래 과감하게 자신의 천성을 내세우며 불음주시를 창작한 것이다. 이는 중국 고전시의 계보적 계승이 중시되었던 문단에서 이를 등지고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18세기에 나타난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가 어떻게 시가창작에서 나타났는지 그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원매의 「不飲酒二十首」는 술과 경계를 짓고 그 속에서 제대로 된 평화와 안정을 느끼며 음주가 지녔던 역사성에 대한 부정을 통해 진취적이고 과감함을 지닌 정체성의 기호를 이끌어 내었다고 볼 수 있다.

〈參考文獻〉

- 袁枚 著, 王英志 主編, 『袁枚全集』, 江蘇古籍出版社, 1993.
 蘇軾 著, 馮應榴 輯注, 黃任軻, 朱懷春 校點, 『蘇軾詩集合注』, 上海古籍出版社, 2001.
 허만즈 저, 김하림·한종환 역, 『중국의 술 문화』, 에디처, 2004.
 김창환, 『도연명의 사상과 문학』, 을유문화사, 2007.
 김창환, 『도연명 시집』, 김창환, 연암서가, 2014.
 김중권, 『송대의 술과 문화』, 한국학술정보, 2008.
 戎霞, 「從《不飲酒》看袁枚對陶淵明的解構」, 閱讀與寫作, 2004.
 송용준, 「도연명 시에 나타난 '술'의 의미」, 인문논총, 2011.
 윤석우, 「음주시에 나타난 중국인의 정신세계」, 연세대중문과박사논문, 2005.

- 서유원, 장창호, 「도연명과 이백 음주시의 성격 비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제20집, 2010.
 최일의, 「『陶淵明詩話』를 통한 陶詩의 수용과 해석의 양상에 관한 연구」, 최일의, 『중국문학』 제57집, 2008.
 홍혜진, 「18세기 江南 도시 문예장과 袁枚의 글쓰기」, 서울대중문과박사논문, 2015.

〈Abstract〉

A Study on Changing from the Genealogy to the Taste
 – Focusing on Yuanmei's 「不飲酒二十首」

Hong, Hye-jin

Yuanmei袁枚 was a representative person in the middle of Qing Dynasty. He retired from a mayor of 江寧 town at the age of 33 years(1748) and spent as a full time writer for the remainder of his life in Gangnam City. Instead of being bound by tradition, he left a lot of individual work which had a influence on the literary world's change of the 18th century. In the case of this example, I examined a poem - 「陶淵明有飲酒二十首余天性不飲故反之作不飲酒二十首」 closely. The poem was wrote at the his age of 44, which he was actively engaged in literary work, and faithfully implemented his literary view. This pome that refused to drink was strange and outrageous, and it was wrote largely for two purposes. First, the poem made human being's values such as value of one's identity more important and more independent through personal temperament性靈. Second, the poem was parted from the evils of the long-held tradition of blindly imitating Taoyuanming陶淵明 alcohol and his drinking poem. Yuanmei drew a boundary between him and alcohol by asserting its own nature and taste. The symbol of this negativity indicated his identity. The poem showed a self-centered concern to preserve himself and a sense of self-satisfaction about his life. This attitude became a milestone in the creation of progressive and courageous for beginners and writers.

And we could look at the process of how the a demand for something new emerged in the 18th century's poem.

Key Words: Yuanmei, Taoyuanming, alcohol, taste, temperament, identity.

이 논문은 2017년 10월 15일에 접수되어 2017년 11월 1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7년 11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